

# “아이들의 마음 이해하는 계기됐어요”

## 고성교육지원청,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인성캠프' 개최



지난 23일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인성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 학부모지원센터는 지난 23일 오전 9시 고성지역 초·중·고 학부모 및 자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학부모 및 자녀 체험행사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인성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캠프는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교육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교육 경험을 확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사랑을 다지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캠프를 통해 내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부모의 생각만 강요했던 것이 미안하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접경지역 활성화방안 학술회의

경동대학교 DMZ통일연구원, 지난 27일

경동대학교 DMZ통일연구원(원장 이병선 교수)은 지난 27일 국제회의실에서 '최근 남북한 정세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와 (사)전국대학 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접경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북한 정세를 이해시켜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시키고 향후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열

렸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연구소의 협력모델을 제시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사회통합 그리고 평화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회의는 경동대가 통일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접경지역의 통일준비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광연 기자

### 난타공연 고성 온다

풍물패 한울 11월 3일, 고성문화의집 3층

고성지역 풍물패 한울(대표 정병근)이 주관하는 제17회 문화의 달 기념공연이 오는 11월 3일 오후 7시 고성문화의집 3층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전순애 등 3명이 참가하는 설장고, 엄채

란 등 3명이 참가하는 민요, 정병근 등 6명이 참가하는 사물놀이 삼도가락이 진행된다. 또 서울과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관현악단과 난타팀 한울소리의 난타공연이 펼쳐진다.

최광호 기자

### 아이들에게 몸의 소중함 일깨워 줘

아이코리아 고성군지회, 어린이 성폭력·유괴예방 인형극 공연

아이코리아 고성군지회(회장 홍봉선)는 지난 25일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에서 어린이 성폭력 및 유괴예방 인형극을 개최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갖고 성폭력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인형극은 지역의 7세이하 어린이 및 지역아동센터 초등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인형극에서는 소중한 몸에 대한 이해, 소중한 몸 보호하기, 성학대 상황 이해 및 대처 능력 기르기 등 다양한 교육이 전개됐다.



지난 25일 어린이들에게 자기 몸의 소중함을 일깨워줘 성폭력을 예방하는 인형극 공연이 열렸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 인형극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로 꾸며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 이해에 큰 도움이 됐다. 홍봉선 아이코리아 고성군지회 회장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인

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기 몸의 소중함을 일깨워줘 성폭력 예방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코리아 고성군지회는

사랑의 점심나누기 봉사, 불우이웃 연탄나누기 등 지역의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자라나는 지역 아동의 밝고 희망찬 건전 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광연 기자

### 특수교육 담당자·학부모 연수회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은 지난 26일 초계학생수련장 2층 시청각실에서 '2011 특수교육 담당자 및 학부모 연수회'를 개최했다.

특수교사, 통합학급교사, 특수교육보조원, 특수인턴교사, 순회강사,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등 총 70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연수회에서는 '특수교육 현장의 실제'라는 주제로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직업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이날 연수



지난 26일 열린 '2011 특수교육 담당자 및 학부모 연수회'에서 김경로 교육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를 통해 관내 특수교육대상자의 향후 진로 및 전환교육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위해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